

제주도 존자암 고(考)

한금순 *

• 목 차 •

- I . 머리말
- II . 존자암에 관한 기록
- III . 존자암의 활동 시기
- IV . 존자암의 역할
- V . 존자암의 위치
- VI . 맺음말

* 문학박사, 제주대학교.

한글요약

제주도 존자암은 탐라국시대부터 활동하여 고려시대에는 비보사찰로, 조선 후기까지 활동하였던 사찰이다. 제주도 사찰 가운데 역사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찰이다. 고려시대 존자암의 모습은 존자암지 발굴 유물을 통해 살필 수 있고, 조선시대는 개인 혹은 공적 행사를 위한 기록물, 한라산 등반기록 그리고 제주도 관련 지도 등 20여 종의 기록이 있다.

존자암의 활동시기는 탐라국 시대부터였으며 1750년경까지 존재했던 기록이 있으며, 1841년 기록부터는 언급이 없어 이 기간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존자암은 고려시대 비보사찰이었다. 제주목사의 존자암을 위해 시주한 명문기와가 발굴되어 있다. 1500년경까지도 국가에서 하사받은 논에서 나는 경비로 제주목사가 국성재를 행하였다. 점차 존자암은 한라산제를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한라산 등반을 위한 숙소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존자암의 위치는 1530년경까지는 한라산 영실 수행동 오백장군 부근에 있었다. 1578년 오백장군동 밑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진 존자암의 기록으로 미루어 1530년 이후 1578년 이전 어느 시점에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국성재, 제주도의 비보사찰, 한라산제, 수행동, 존자암개구유인문, 충암 존자암중수기, 만호검목사 김충광, 천호 부승석

I. 머리말

제주도 사찰 가운데 역사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찰은 존자암¹⁾으로 파악된다. 이는 존자암이 한라산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유로 한라산제를 지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사찰로서의 기능 외에 한라산 등반을 위한 숙식의 장소로도 이용되면서 기록에 많이 남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자료를 부분적으로 인용함으로 인해 시대적 오류나 인용의 오류가 더러 있었다. 이에 존자암의 옛기록에 대한 기본적 고찰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옛기록 속에 묘사된 존자암의 활동시기, 역할, 위치를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차후 존자암 연구에 있어 자료 인용의 오류를 줄이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존자암의 역할에 따른 불교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존자암에 관한 앞 시대의 기록은 후대의 여러 기록에 반복 인용되며 새로운 상황을 부가하여 기록하는 양상으로 조선시대 육지부에서 제주도를 찾은 관리나 유배인들의 기록에 등장한다. 존자암지 발굴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양상을, 조선시대 기록을 통하여서는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의 시대적 양상 및 역할 등을 살피게 될 것이다.

존자암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조선시대 제주도 관련 기록 중 존자암이 기록되지 않은 한라산 등정 기록도 참고로 하였다. 시기별로 기록을 살펴 존자암의 활동 시기와 시기별 존자암의 역할, 존자암의 위치 등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다.

1) 현재 존자암지는 제주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존자암 세존사리탑(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7호)이 남아있고, 현재 새로운 존자암이 한라산 영실 지경에 복원되어 있다.

II. 존자암에 관한 기록

존자암에 관한 역사 기록으로는 존자암지 발굴 유물과 조선시대 제주도 관련 인물들의 개인 기록과 공적 기록물 등이 있다.

< 표 1. 존자암 관련 기록 >

분류	저자	자료 명	연도
발굴 유물	김충광, 부승석	존자암지 명문 기와	1373년 ~ 1384년
존자암 관련 기록	홍유손	존자암 개구 유인문	1507년
	김정	총암 존자암 종수기	1520년 ~ 152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481년, 1530년
	임제	남명소승	1578년
	김상헌	남사록	1601년
	김치	유한라산기	1609년
	이경억	시 - 존자암	1651년
	이원진	탐라지	1653년
	이증	남사일록	1680년
	이익태	지영록	1694년
한라산 등반 기록	이형상	남환박물	1702년
	이원조	탐라지 초본	1841년
제주도 관련 지도	최익현	한라산기	1875년
		탐라전도	1700년대 경
		조선강역총도	1700년대 전반
		제주삼현도	1750년 경
		동여도	1857년
		대동여지도	1861년

이들 기록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존자암지 발굴 유물 및 명문기와 (1373년~1384년)

1993년과 1994년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존자암지 발굴 조사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 1번지 한라산 영실 서북편 불래오름의 남사면 능선의 존자암지 발굴조사이다. 뒤에서 살펴겠지만 존자암은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더 한라산 위쪽에 있었다가 후일 이전되었다. 발굴 조사 지역은 1570년대 이후의 존자암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존자암지 발굴 조사 결과 존자암지에서는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친 석축시설과 금당 선방 비각 등 건물지 5개소, 부도와 부도지, 배수시설, 적석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목탑의 중심 주초석도 발굴되었고, 유물로는 청자·분청 도자기류와 청동제 지국천왕상 등이 출토되었다. 1994년 2차 조사로는 존자암 초기에 만들어진 건물지와 석축시설이 정교하게 축조되었고 상당한 인력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²⁾

존자암지에서는 ‘만호겸목사(萬戶兼牧使)’, ‘천호부승석(千戶夫承碩)’ 등의 명문이 있는 기와를 비롯한 천여 편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만호와 천호는 고려 고종 이후에 만들어진 관리의 명칭이다. 이들 다수의 명문기와는 고려시대 존자암의 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존자암지에서는 ‘●二月修正禪師大夫金沖光, 萬戶兼牧使奉●●●’이라는 명문 기와가 다수 출토되었다. 어느 해 이월 수정선사 대부 김충광 만호 겸 목사가 바친다는 명문이다. 제주도의 목사가 만호와 겸직을 하는 기간은 고려 충렬왕 27년(1301년)부터 조선 정종 2년(1398년)까지로 보고 있다. 김충광 목사는 1373년부터 1376년까지 3년간, 1383년에서 1384년까지 2년간 제주목사로 부임했다.³⁾ 이 명문기와를 통해 존자암은 1373년부터 1384년 사이에 새로 만든 기와를 사용한

2) 제주도,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경신인쇄사, 1996).

3) 제주도,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경신인쇄사, 1996), p.186.

건물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존자암은 제주도 만호 겸 목사 그리고 천호 등의 관리들이 존자암 건물을 위한 시주를 하였고, 건물이 여러 동이 건축되어 있었다.

2. 존자암 관련 기록

1) 홍유손(洪裕孫) 「존자암 개구 유인문(尊者庵改構侑因文)」 (1507년)

홍유손(洪裕孫, 1431년~1529년)은 연산군 4년(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도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존자암에 관한 조선시대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홍유손의 「존자암 개구 유인문」이다. 홍유손은 정의현 사람들이 존자암을 중수하기를 하소연하므로 1507년 봄에⁴⁾ 이 글을 쓴다고 하였다.

홍유손은 존자암이 탐라국 시대부터 있었고 나라에서 하사한 논에서 나는 벼를 경비로 하여 세 읍의 수령들이 국성채를 지냈던 비보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 존자암은 제주도에 세 성(姓)이 처음 일어날 때 창건되어 세 읍(邑)이 정립한 뒤에까지 오랫동안 전해 왔으니, 비보소(裨補所)이자 세상에 이름이 난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이 암자

4) 홍유손은 1498년 제주도에 유배되고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그러나 홍유손은 「존자암 개구 유인문」의 서두에 ‘제주도에 있을 때’ 썼다고 기록하였고 「존자암 개구 유인문」의 말미에는 ‘正德 單闕 孟春 人日에 썼다’고 기록하였다. 정덕은 명나라 연호이고 단알은 고갑자(古甲子)로 묘(卯)를 뜻하여 정묘(丁卯)년 즉 1507년을 말한다. 따라서 홍유손은 1506년 해배되었고 1507년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떠난 것으로 보인다.

에 논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재(齋)를 지낼 경비로 삼고, 음력 4월에 길일을 잡아 세 읍의 수령 중 한 분을 뽑은 다음 목욕재계하여 이 암자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이를 국성재(國聖齋)라 하였는데, 지금은 이 제사가 폐지된 지 6, 7년이 되었다.⁵⁾

존자암 터는 풍수지리서에 부합하는 난봉과 현무 월덕 주작 청룡과 백호의 아름다운 형국을 고루 갖춘 곳이라 하였다.

이 암자의 형세는 ... 주봉(主峰)이 가득 서린 기운을 머금고 둥글게 우뚝 솟아 가파르게 높다가 점차 낮아져 ... 차가운 샘이 깊은 근원에서 솟아나 옥이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흘러 맑고도 향기로운 것은 이른바 그곳에 월덕(月德)이 있어 좋은 물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으로⁶⁾

홍유손이 표현한 존자암은 1500년경까지 국가에서 경비를 받아 국성재를 지내던 비보소였으며 한라산 중턱 옥소리 내는 맑은 샘이 있는 지경에 위치하고 있었다.

2) 김정 「충암 존자암 중수기(沖菴 尊者庵 重修記)」 (1520년~1521년)

김정(金淨, 1486년~1520년)은 기묘사화로 1520년에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1521년 10월 사사(賜死)되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충암 존자암 중수기」가 실려 있다. 충암의 글은 홍유손의 글 「존자암 개구 유인문」과 매우 비슷하여 홍유손의 기록을 근거로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5) 홍유손, 『(국역)소충유고』(소충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pp.59~60.

6) 홍유손, 『(국역)소충유고』(소충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pp.60~61.

존자암이 암자로 된 것은 삼성이 처음 일어날 때에 비로소 만들었는데, 삼읍이 정립된 후에까지 오래도록 전해졌다. 또 암자가 자리 잡은 형세는 풍수지리서에 많이 들어맞는다. 그 터를 말한다면 주봉은 널리 덮여 가득차고 둥글게 올라가 있다. 험준하고 우뚝 서 있는데 점점 낮아져 마치 봉황새가 날개를 펼쳐 날다가 내려앉아⁷⁾

국성재는 홍유손과 달리 표현하였다.

음력 4월에 길일을 택하여 삼읍 수령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이 암자에서 목욕재계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를 국성재라고 하였다. 지금은 그것을 폐지한 지 겨우 8, 9년이 된다.⁸⁾

1520년 제주도에 있던 김정은 1512~13년경에 폐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존자암의 국성재는 1500년경 혹은 1512~13년까지 행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481년,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불우조(佛宇條)에는 존자암이 기록되어 있다.

존자암[옛날에 한라산 영실에 있었다. 그곳 골짜기에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바위가 있어 민간에서는 수행굴이라고 전해온다.]⁹⁾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중종 25년(1530년)에 증보하고 신증(新增)이란 두 글자를 첨

7)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p.156~157.

8)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58.

9) 제주시, 제주대학교박물관 편, 『제주목지총람』(제주시, 2002), p.267.

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 이후에 증보된 내용은 반드시 신증(新增)이라 기록하여 그 증보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존자암 항목에는 신증(新增)이란 표시가 없다. 신증(新增)이란 글자를 써 넣지 않은 것은 1530년 증보할 때 새롭게 첨가할 사항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존자암은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인 1481년에도 있었고 1530년에도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존자암은 한라산 영실 수행골에 있었다.

4) 임제 『남명소승(南溟小乘)』 (1578년)

임제(林悌, 1549년~1587년)는 1577년(선조 10년) 제주목사로 재직 중인 부친 임진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 왔다. 임제는 『남명소승』을 통해 제주의 풍속과 경관, 제주도 사람들의 사는 모습 등을 기록해 놓았다. 임제는 1577년 11월 9일 조천관으로 들어와 4개월여 제주도 생활을 하고 다음해 2월 말일 별도포로 떠났다.

임제는 1578년 2월 10일 한라산 등반에 나섰다가 날씨 때문에 존자암에 5일을 머물렀다. 존자암에는 승려 청순이 있었고, 청순과는 전해 11월에 천제담에서 만나 자신은 한라산에 가고자하는데 눈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물었던 사이이다.¹⁰⁾

11일 오백장군동에 가서 놀았다. ... 탐상은 때를 옮겨 곧 존자암에 가서 바둑을 ...

12일 구름이 깊어 절정에 오를 수 없었으므로 존자암에 머물렀다.

13일 바람과 안개가 크게 일어 존자암에 머물렀다. 통관이 식량과 술을 보내었다.

14일 존자암에 머물렀다. 큰비가 밤새도록 내리고 ...

15일 맑은 아침 햇빛은 창을 비추었으며 바람은 따뜻하니... 밤을

10) 임제, 박용후 역, 『남명소승』(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51쪽.

재촉하고 조심하여 가서 영곡동 어구를 지나니 바위 봉우리는 새로 씻기로 옥잠은 참치하였다.¹¹⁾

15일 아침 임제는 존자암의 승려 청순과 동행하여 한라산을 등반하였고, 내려올 때는 서귀포 쪽 방향으로 내려와 두타사에 머물렀다.¹²⁾

존자암은 목사의 자제인 임제의 한라산 등반을 위한 쉼터로 이용되었다.

5) 김상헌 『남사록(南槎錄)』 (1601년)

김상헌(金尙憲, 1570년~1652년)은 선조 34년(16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길운절과 소덕유의 모반사건을 다스리기 위한 안무어사(安撫御史)로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1601년 9월 22일 제주 애월포로 도착하였고 4개월여 임무를 마치고 이듬해 1월 25일 제주 조천관으로 떠났다. 제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교서를 반포하고 한라산 산신제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비변사의 조목을 수행하고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삼읍의 상황을 살폈다. 삼읍의 호구·군사·방호소 및 건축물·공물·제주역사 등을 기록하여 『남사록』을 남겼다.

지지(地誌) 남자 승려는 있으나 여승은 없다. (무릇 사찰에는 불상을 그럴 듯하게 모시며 중들은 모두 집을 지어 사찰 곁에서 처자를 기른다. 유사시에는 군역에 나간다고 한다.)

‘남자 승려는 있으나 여승은 없다’는 것은 지금도 역시 그렇다. 유사시에 군역에 나간다는 것은 섬 안의 남자 중 한정(閑丁)이 없다는 것이다. 나이가 5~6세가 되면 이미 군역에 충당된다. 군인으로 정

11) 임제, 박용후 역, 『남명소승』(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pp.63~67.

12) 임제, 박용후 역, 『남명소승』(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pp.69~70.

해진 뒤에 머리 깎고 승려가 된 자도 관가에서는 승려나 속인을 불문하고 모두 군역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 때문에 군대(隊伍)에는 머리 깎은 자가 자못 많다. 오직 존자암에는 승려로 아내 없는 자가 있다.¹³⁾

김상헌은 기존의 제주 관련 기록을 적고나서 자신이 살핀 모습을 다시 적어 놓았다. 지지에는 제주도에는 여승이 없으며, 승려들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있었으며 군역에도 나간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1601년 김상헌이 볼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음을 기록하였다. 여승이 없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였고, 유사시 승려가 군역에 나가는 이유도 설명하였다. 관가에서는 승려나 속인을 불문하고 군역을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군대에는 머리 깎은 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존자암의 승려만 아내가 없는 자라 하였다.

김상헌이 존자암에 간 것은 1601년 9월 24일이다. 김상헌은 한라산 제를 지내기 위해 한라산에 올랐다. 제주 객사에 머무르던 김상헌은 남문을 지나 병문천, 대천을 건너 한라산으로 들어섰으며 존자암에 도착해 쉬었다.

남문(南門)을 나섰다. ... 존자암에 도착해서 조금 쉬었다. (제주 관아의 사람들이 모두 고하여 말하기를, “오늘은 날이 이미 늦었고 여기서 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40여리가 남았는데 가는 길이 매우 험합니다. ... 비바람을 만나면 어둡고 길을 잃어 나아갈 수도 뒤돌아 갈 수도 없게 될 것이니 절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 뒤의 깨끗한 땅을 청소하여 단(壇)을 만들고 제사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였다. 나는 듣지 않고 그대로 가기로 하였다.)¹⁴⁾

날이 저물고 비가 올듯하여 제주 관아 사람들이 존자암에서 단을

13)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p.96~97.

14)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p.141~142.

만들어 제사를 지낼 것을 권했으나 김상헌은 그냥 한라산을 향하기로 하였다.

백록담 북쪽 기우단에서 한라산제를 거행하였다. 제주판관, 대정현감, 정의현감 등이 같이 올라가 제사를 지냈고 승려 몇 사람도 동행하였다.

백록담의 북쪽 모퉁이에 단이 있으니 제주목에서 늘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밤을 무렵에 행사를 하였다.(집사는 제주판관 이종일, 대정현감 이신, 정의현감 이연경, 제주훈도 진위이다.) ... 동행한 승려 몇 사람이 ... 나에게 말하기를, “먼저 번에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날 존자암에서 재계(齋戒)하면서 머물고 ...¹⁵⁾

1601년 존자암의 규모는 아홉 칸이었으며 판자로 지은 집이었다. 산 중 흙이 점착력이 없고 기와는 육지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기와와 흙 대신 판자로 지붕과 벽을 만든 것이라 하였다.

존자암의 암사(庵舍)는 아홉 칸인데 지붕과 벽은 모두 기와나 흙 대신 판자를 썼다. 승려들에게 물어보니 “이 산속의 흙 성질은 점착력이 없고 또 모래와 돌이 많아 벽을 바르는 데 알맞지 않습니다. 기와는 반드시 육지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재력이 미치지 못해 어렵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일으켰다 폐했다 하다가 계사년(1593년)에 강진에 사는 승려가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들어와 군역을 썼는데, 군역을 마치자 곧 돈을 들여서 중수하였습니다.”고 한다.¹⁶⁾

김상헌이 본 존자암은 여러 번 홍폐를 거듭하던 중에 계사년(1593년)에 중수한 것이었다.

김상헌도 홍유손과 같이 존자암은 탐라국시대부터라고 인식하고

15)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149쪽.

16)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159쪽.

있다.

품관(品官)이하 모두 조정의 권세 있고 지위 높은 사람과 교제를 맺으며, 누구나 부처에게 축원한다. 세력있는 호족은 진무(鎭撫)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지방민이 성주(星主) 때부터 내려온 풍속이 그러하다.¹⁷⁾

1601년 김상헌이 본 존자암은 아홉 칸 규모의 판자집이었다.

6) 김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1609년)

김치(金緻, 1577년~1825년)는 광해군 1년(1609년) 3월에서 2년(1610년) 1월까지 제주판관을 역임하였다. 김치는 한라산을 등반하고 나서 『유한라산기』를 남겼다.

김치는 1609년 4월 8일 존자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존자암의 승려 수정과 함께 수행굴, 칠성대를 거쳐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의 정사에 도착하였다. 높이 안개 속에 있고 아래로는 넓은 바다를 누르고 있는데 바로 존자암이다. 판자집 8, 9칸인데 따로 지붕을 했는데 사치스럽지도 않거니와 누추하지도 않다. 한 더부룩한 승(僧)이 문 밖으로 나와 절을 하며 선당으로 맞아들였다. ... 갈 길을 재촉하고 수정(修淨)으로 하여금 앞을 인도하게 하였다.¹⁸⁾

존자암은 판자집 8, 9칸으로 사치스럽지도 않거니와 누추하지도 않은 정사(精舍)였고, 높이 안개 속에 있고 아래로는 넓은 바다를 누르고 있었다.

17)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01.

18)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189.

6, 7리를 가니 영실 골짜기에 다다랐다. 자못 널찍하고 컸는데 여기도 또한 옛날 존자암 터이다. 천길 푸른 절벽이 둥그렇게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위에는 괴상한 돌 형상을 한 나한과 같은 것들이 5백여 개나 있고¹⁹⁾

1609년 김치가 보았던 존자암보다 한라산 속으로 6, 7리를 더 들어가 영실 골짜기 오백나한 부근에 이전의 존자암 터가 있었음도 기록하고 있다.

1601년 김상헌이 본 존자암과 1609년 김치가 본 존자암의 규모와 모양은 흡사하다. 판자로 된 집은 아홉 칸 정도의 규모였다.

7) 이경억의 시 「존자암」 (1651)

효종 2년(1651년)에 안핵어사로 제주도에 왔던 이경억(李慶億, 1620년~1673년)은 존자암을 시로 남겼다. 이경억은 정의현감 안즙과 제주목사 김수익과의 사사로운 원한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핵어사로 파견되었다. 『탐라지』에 이원조가 그의 시를 실고 있다.

존자암은 유명한 절로 알았더니
이제 보니 황폐하여 쓸쓸한 옛 터일세.
천년 묵은 외로운 탑은 남아있고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있네.
바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이 별로 없고
남쪽 지방 스님은 예불이 어색하다.
가을 하늘의 노인성을 바라보니
속세 생각 이미 함께 사라지네.²⁰⁾

19)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190쪽.

20)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 탐라지』(푸른역사, 2002), 148쪽.

1651년 이경억이 본 존자암은 예법이 서투른 승 애기로 보아서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쇠락한 모습이였다. 탑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다.

8) 이원진 『탐라지(耽羅誌)』 (1653)

이원진(李元鎭, 1594년~?)은 효종 2년(1651년) 7월에 제주목사로 도임하였고 1653년 10월에 제주를 떠났다. 1653년 이원진의 발의에 의해 『탐라지』가 편찬되었다. 『탐라지』는 체제를 갖춘 가장 오래된 읍지로 17세기 중엽의 제주도의 사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탐라지』에는 제주목 불우(佛宇) 조와 대정현 불우 조에 존자암이 두 번 나온다. 제주목의 표현은 옛 존자암이고 대정현의 기록은 옮긴 존자암에 관한 기록이다.

제주목 불우(佛宇) 조에는 존자암이 옛날에는 한라산 영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정현 구역으로 서쪽 기슭 바깥 10리쯤에 옮겨져 있다고 하였다.

존자암 : 옛날에 한라산 영실에 있었다. 그곳 골짜기에 승려가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바위가 있어 민간에서는 수행동이라고 전해온다. 지금은 서쪽 기슭 바깥 10리쯤 되는 대정현 구역으로 옮겼다.²¹⁾

대정현 불우 조에는 대정현 동쪽 60리에 있다고 하였다.

존자암 : 한라산 서쪽에 있는데, 대정현 동쪽 60리에 있다. 절 동쪽에는 샘이 솟는데 물이 100보쯤 흘러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간다.²²⁾

21)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 탐라지』(푸른역사, 2002), p.148.

22)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 탐라지』(푸른역사, 2002), p.258.

이원진은 존자암 시도 남기고 있다.²³⁾ 1653년 존자암은 대정현 소속으로 영실에서 10리쯤 서쪽 기슭에 있었다.

9) 이증, 『남사일록(南槎日錄)』 (1680년)

이증(李增, 1628년~1686년)은 숙종 5년(1679년) 제주 안핵 겸 순무어사로 임명되어, 1679년 12월 7일 제주도 화북포로 입도하였으며, 이듬해 숙종 6년(1680년) 4월 4일 제주를 떠나 4개월여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이증은 한라산제를 지내려 하였으나 3월 초에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날씨로 인해 계속 연기하다가 1680년 3월 19일 한라산에 오르게 되었다. 제주관관과 정의현감, 대정현감 등과 함께 했다. 남문으로 나서서 점심 때쯤 존자암에 도착하였다.

향축을 모시고 남문을 나서서 ... 30리를 가서 존자암에 도착하여 점심을 하였다. ... 또 칠성대, 좌선암을 지나가는데 ... 해질 무렵 간신히 정상 밑에 도착하여 백록담에 장막을 쳤는데²⁴⁾

존자암은 1680년까지도 한라산제를 지내려고 한라산에 오르는 관리들이 활용하고 있었다.

10) 이익태 『지영록(知瀛錄)』 (1694년)

이익태(李益泰, 1633년~1704년)는 숙종 20년(1694년) 제주목사로 제수되어 3년여 제주생활을 하면서 각 진의 상황을 기록한 『지영록』을 남겼다. 제주목사 이익태는 1694년에 한라산을 두 번 등반하였다.

23)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푸른역사, 2002), pp.148~149.

24)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p.178~179.

서쪽으로 산허리를 내려오며 칠성암(七星岩)을 지나왔다. ... 소나무 숲으로 20리를 가니 영실이 있었다. 바위 봉우리들이 기이하여 오래 머물며 구경하였다. 또 10리를 가니 바로 존자암이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부서진 지붕과 몇 개의 기둥뿐이었고 가가(假家)가 더 지어져 있어 산에 놀러왔을 때 점심을 해 먹는 곳이었다.²⁵⁾

1694년 존자암은 부서진 지붕과 몇 개 기둥의 모습이었고 가가(假家)를 지어 산에 놀러왔을 때 점심을 해먹는 곳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때 쯤부터 존자암은 사찰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1) 이형상 「남환박물관(南宦博物館)」 (1702)

이형상(李衡祥, 1653년~1733년)은 숙종 28년(1702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703년 3월 파직되기까지 10개월여를 근무하였다.

이형상의 기록에도 1702년 존자암은 초가 몇 칸이었고 승려는 살지 않았다. 존자암은 산에 오르는 관리들이 숙식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찰의 터는 삼읍에 심히 많다. ... 대정 지경에 유일하게 존자암이 있는데 단지 이는 초가 몇 칸이다. 역시 스님이 살지 않는다. 다만 별성(別星)(임금 명을 받들어 파견된 사신)이 산에 오를 때 숙식할 뿐이다.²⁶⁾

이형상은 영실 수행동의 좌선암을 옛 존자암이라 하였다.

25) 이익태 지, 김익수 역, 『지영록』(제주문화원, 1997), 20쪽.

26) 이형상, 「남환박물관」(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4), 335쪽.

서쪽 산기슭 50리 밖에 영실이라고 하는 동부(洞府)가 있는데 속명으로 오백장군동이라 한다. ... 위에 수행동(修行洞)이 있는데 동(洞)에는 칠성대가 있어 좌선암이라 말하였다. 이는 옛날 스님의 팔정의 옛터(八定之墟)인데 이를 존자암이라 부른다.²⁷⁾

1702년 이형상이 본 존자암은 초가 몇 칸이었고 승려는 살지 않았으며 산에 오르는 관리들이 숙식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3. 한라산 등반 기록

1) 이원조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1841)

이원조(李源祚, 1792년~1871년)는 헌종 7년(1841년) 3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2년 4개월 후 헌종 9년(1843년) 7월에 제주도를 떠났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은 제주도 읍지의 총결산이라 할 만한 것으로 재래 읍지의 수정본이다.

이원조는 김치의 한라산 「유산기(遊山記)」 뒤에 자신이 한라산에 오른 기록을 붙여 놓았다. 이 글에 의하면 이원조가 한라산을 올랐을 당시 존자암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원조는 죽성 방면으로 백록담에 올랐으며 내려올 때는 오백나한 방면으로 내려와 노숙하였다.

낭떠러지가 완만한 곳에는 기이한 암석이 늘어서 있었다. ... 나한이라는 이름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 대정현은 3사(30리)거리에 있다. ... 날은 이미 저물었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없었다. 부득이 노숙할 계획을 세웠다.²⁸⁾

27) 이형상, 「남환박물」(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4), p.316.

28) 이원조, 『탐라지초본』상(제주교육박물관, 2007), p.37.

1841년 경 존자암은 더 이상 건물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조가 한라산을 올랐을 때에는 숙박 장소로도 이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최익현 「한라산기(漢拏山記)」 (1873년)

최익현(崔益鉉, 1833년~1906년)은 고종 10년(1873년) 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였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 위리안치형을 받았다. 1875년(고종 12년) 2월 9일 특사로 방면될 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1875년 3월 27일 한라산을 등반하여 「한라산기」를 남겼다.

20리쯤 내려오니 이미 황혼이 되었다. 내가 “뜬건대, 여기서 인가(人家)가까지는 매우 멀다하며, … 차라리 노숙하고서 내일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 어떤가?”하니, 일행 모두가 좋다고 하였다. … 다시 10리를 내려와서 영실에 이르니, 높은 봉우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우뚝한 괴석들이 웅장하게 늘어서 있는데, 모두가 부처의 형태였으며, 백이나 천 단위로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여기가 바로 천불암(千佛巖) 또는 오백장군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산남(山南)에 비하면 이곳이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였다.²⁹⁾

1875년 최익현도 한라산에서 노숙을 하고 내려와 오백장군을 보았다고 하니 영실에는 존자암이 없었음을 증빙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29) 최익현, 「한라산기」 (오문복 역, 『제주도실기』(제주시 우당도서관, 경신인쇄사, 2003)), 48쪽.

4. 제주도 관련 지도

조선시대 기록 중 지도에 제주도의 사찰이 나타난다. 그 중 존자암은 『탐라전도』(1700년대 경)에 9개 사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강역총도』(1700년대 전반)와 『제주삼현도』(1750년경)에 존자암이 나타나고, 김정호의 『동여도』(1857년)와 『대동여지도』(1861년)에는 수행굴이 표시되어 있다.

< 표 2. 제주도 관련 지도 상 존자암 표시 여부 >

시기	지도 명	존자암 표시 여부
1700년대 경	탐라전도(耽羅全圖)	존자암 표시
1700년대 전반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	존자암 표시
1750년 경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존자암 표시
1857년	동여도(東輿圖)	수행굴 표시
1861년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수행굴 표시

지도를 통해서는 1750년경까지 존자암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원조의 1841년 기록에 존자암 건물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도에서도 1857년부터 더 이상 존자암이 표시되지 않는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상 존자암지 발굴유물과 존자암 관련 기록, 한라산 등반기록 및 제주도 관련 지도 자료들을 통하여 존자암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 조선시대 후반기로 들어서면 제주불교도 조선시대 불교와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쇠퇴하였고 존자암도 마찬가지였음을 볼 수 있었다.

III. 존자암의 활동시기

제주불교사 연구에 있어서 논란의 쟁점이 되는 사안은 제주불교의 시원, 18세기 이후 무불시대였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³⁰⁾ 본고에서 존자암의 활동 시기를 살피는 것은 기록상에 나타나는 제주도 불교의 모습을 통해 제주불교 활동의 역사적 모습을 정립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자 함이다.

1. 탐라국 시대 존자암

존자암은 “제주도에 세 성(姓)이 처음 일어날 때 창건되어 세 읍(邑)이 정립한 뒤에까지 오랫동안 전해 왔다”³¹⁾고 한다. 홍유손부터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 김정 등 이후의 기록도 이러한 인식을 이어가고 있다. 세 성(姓)은 탐라를 개국한 고을나·양을나·부을나를 일컬으며, 세 읍(邑)은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제주·정의·대정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한 문헌이나 자료가 전하지 않는다. 다만 탐라국이 백제, 신라와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과도 교류하였던 자료를 통해 탐라국도 이러한 교류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제기할 수 있다. 탐라국 시대의 제주도의 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이후 『속일본기』의 제주음악, 3세기~6세기까지를 다룬 『북사』에서 수나라의 탐라 묘사, 『당회요』의

30) 이러한 쟁점에 대해 필자는 탐라국의 대외 교류를 통해 제주불교의 시원을 밝히려는 입장이고, 18세기 이후 제주불교 활동의 흔적을 통해 무불시대가 아니었음을 연구하는 입장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한금순, 「제주불교사」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31) 홍유손, 『(국역)소총유고』(소총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p.59.

661년 탐라 조공사 기록, 665년 당나라 국가의례에 참석했던 『구당서』에 전하는 탐라의 기록, 『일본서기』에 나오는 661년 이후에 탐라가 매년 일본 지역과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해 전복, 그리고 철제 실 생활 도구 등을 주고받았던 사실 등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서 고대 탐라의 활동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류의 흔적은 탐라국 시대에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말해주고 있다.

1601년 김상헌도 “누구나 부처에게 축원한다. 성주(星主) 때부터 내려온 풍속이 그러하다.”³²⁾라고 탐라국 시대로부터의 제주불교를 말하고 있다. 성주(星主)는 탐라국의 왕이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탐라국은 A.D 300~400년경에 개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탐라국은 성주(星主)와 왕자(王子)가 다스렸으며, 고려 숙종 10년(1105년)에 이르러서야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다. 제주도가 삼읍 체제로 된 것은 조선 태종 16년(1416년)에 이르러서이다.

이들 탐라국 시대부터의 존자암 활동기록은 제주불교가 탐라국 시대에 유입되어 있었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2. 고려시대 존자암

존자암의 고려시대 활동은 발굴 유물로 증명된다. 존자암지에서 출토된 ‘●二月修正禪師大夫金冲光, 万户兼牧使奉●●●’ 명문 기와는 존자암의 고려시대 활동을 말해주고 있다. 어느 해 이월 수정선사 대부 김충광 만호 겸 목사가 바친다는 명문이다. 김충광 목사는 1373년부터 1376년까지 3년간, 1383년에서 1384년까지 2년간 제주목사로 부임했다.³³⁾ 이 명문기와를 통해 존자암은 1373년부터 1384년 사이에

32)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01.

33) 제주도,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경신인쇄사, 1996), .186.

새로 만든 기와를 사용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탐라국의 백제, 신라, 고구려와의 교류 기록을 통하여 삼국과의 교류로 삼국의 문물이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불교도 함께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고려시대 1034년 고려 정종 즉위년부터 국가의례인 팔관회에 참석하였다. “탐라국도 또한 방물을 바치니 자리를 내주어 의례를 관람하게 하였고 이후로는 상례로 삼았다.”³⁴⁾ 이때 제주도는 국가의례에 참여하여 방물을 진상해야 할 책무가 없는 행정단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팔관회에 참석하였고 1153년경에 탐라현으로 개편되면서 지방 행정단위로의 책무로 팔관회와 같은 국가의례에 참여하고 방물을 진상하게 된다. 고려시대 제주도의 팔관회 참여는 바로 고려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교류 흔적이다. 고려시대 존자암의 기록은 발굴 유물 밖에 없으나 팔관회 참여 등의 모습에서 고려시대 제주불교의 모습 나아가 존자암의 활동을 고려 불교의 모습과 빚대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3. 조선시대 존자암

조선시대에 들어 존자암은 1500년경까지도 나라에서 하사 받은 논으로 국성재를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점점 사세는 기울었고 간간이 퇴락한 건물을 중수하며 명맥을 잇고 있었다. 1694년경에는 “부서진 지붕과 몇 개 기둥의 모습이었고 가가(假家)를 지어 산에 둘러왔을 때 점심을 해먹는 곳”³⁵⁾이었다. 이 때 쯤부터 존자암은 사찰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702년 이형상도 “존자암은 초가 몇 칸으로 남아 있으나 스님은 살지 않는다고 하

34) 『고려사』 권6, 정종 즉위년 11월조(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신서원, 2000), p.134 재인용).

35)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지영록』(제주문화원, 1997), p.20.

고, 별성이 산에 오를 때 숙식할 뿐”³⁶⁾이라고 하여 이 시기 무렵 존자암은 더 이상 사찰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존자암이 기록된 기록물로는 1750년경에 제작된 『제주삼현도』가 마지막이다. 1841년 이원조가 한라산을 올랐을 때는 존자암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원조는 영실의 오백나한을 언급하면서도 존자암을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한라산의 대정현 지경에서 노숙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존자암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875년 최익현이 한라산을 올랐을 때에도 백록담에서 영실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최익현 일행은 노숙을 하였다.

존자암이 어느 시점에 완전히 활동을 멈추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750년경 이후로 더 이상 존자암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840년경 부터는 건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제주불교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1908년 관음사가 창건되고 1911년 법정사가 창건되고 나서도 존자암은 계속하여 잊혀지고 있었다.

IV. 존자암의 역할

존자암은 시대에 따라 비보사찰로서의 역할, 한라산제를 위한 역할, 혹은 양반들의 한라산 유람을 위한 숙식을 담당하는 역할 등을 하였다.

1. 비보사찰 존자암

비보사찰이라 함은 국가에서 토지를 분급 받던 사찰을 말한다. 제

36) 이형상, 「남환박물」(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4), 335쪽.

주도에도 비보사찰이 있었는데 조선 태종 8년(1408년)까지 법화사와 수정사가 각각 노비 280구와 130구를 가진 비보사찰로 운영되고 있었다.³⁷⁾

존자암은 고려시대 비보사찰이었다. 존자암지 발굴 유물인 제주 만호 겸 목사 김충광과 천호 부승석 등이 만들어 바친 존자암 기와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또한 홍유손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논을 경비로 하사 받아 국성재를 지내었던 사찰이다. 따라서 존자암은 비보사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삼읍의 수령이 존자암에서 국성재를 거행하였다.

나라에서 이 암자에 논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재(齋)를 지낼 경비로 삼고, 음력 4월에 길일을 잡아 세 읍의 수령 중 한 분을 뽑은 다음 목욕재계하여 이 암자에서 제사지내게 하고 이를 국성재(國聖齋)라 하였는데, 지금은 이 제사가 폐지된 지 6, 7년이 되었다.³⁹⁾

국성재가 어떠한 의식이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국어사전⁴⁰⁾에 재(齋)는 불교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백과사전에는 승려에게 공양(供養)을 올리는 불교의식⁴¹⁾이라 하고 있다. 존자암의 국성재는 단어의 뜻 그대로 국성(國聖)을 위한 존자암의 불교의식이었던 것으

37) 『태종실록』 15권 8년 2월 28일 기사 : 의정부에서 제주도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수를 정하다.

38) 제주도,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경신인쇄사, 1996), p.186.

39) 홍유손, 『(국역)소충유고』(소충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pp.59~60.

40) 재(齋): [명사] [불교] 1 같은 말: 재계(齋戒). 2 본디 삼업(三業)을 정제(整齊)하여 악업을 짓지 아니하는 일. 3 정오(正午)를 지나지 아니한 식사.(다음 국어사전 <http://krdic.daum.net>).

41) 재(齋)의 본뜻은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을 정제(整齊)하여 악업을 짓지 않음을 말하는데, 후대에 뜻이 달라져 승려의 식사, 승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의식, 또는 그러한 의식을 중심으로 한 범회나 상사(喪事)에 관련된 의식범회를 뜻하게 되었다.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

로 이해할 수 있다.

홍유손은 “국성재가 폐지된 지 6, 7년이 되었다.”고 하여 국성재가 1500년경 전후에 폐지되었다고 하고 있고 김정은 “국성재를 폐한지 8~9년이 된다.”⁴²⁾고 기록하여 1512~13년경에 폐지하였다고 하고 있다. 김정의 기록으로 홍유손의 존자암 중수 권유 이후에 개수된 존자암에서 국성재가 다시 행해졌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존자암의 국성재는 1500년경 혹은 1512~13년까지 행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존자암 승려로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는 승려는 청순(淸淳)과 수정(修淨)이다. 1578년에는 한라산 유람에 나섰던 임제가 청순을 만났고⁴³⁾ 1609년에는 제주관관 김치가 한라산에 올라 수정을 만났다.⁴⁴⁾ 그 외에도 1593년 존자암을 중수했다는 승려와 1601년 김상헌이 만난 승려 등이⁴⁵⁾ 존자암의 사찰로서의 활동을 말해주고 있다.

2. 한라산제 역할 담당

조선시대 존자암의 역할은 사찰로서의 기능 외에도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라산이라는 상징성에 의해 한라산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00년경까지 행해지던 국성재가 없어지고 나서 존자암은 한라산제를 지내기 위한 일련의 활동 중에 활용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한라산의 날씨가 여의치 않을 때는 관리들이 존자암에 머무르며 기다리기도 하였다.

42)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58.

43) 임제, 박용후 역, 『남명소승』(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p.61.

44) 김치, 『유한라산기』[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p.189~190.

45)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59.

백록담의 북쪽 모퉁이에 단이 있으니 제주목에서 늘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동행한 승려 몇 사람이(경산에서 죄를 짓고 귀양을 온 자들이다) 나에게 말하기를, “먼저 번에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날 존자암에서 재계(齋戒)하면서 머물고, 맑은 날을 기다려⁴⁶⁾

주(州)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이 산에 올랐던 사람은 존자암에서 반드시 여러 날을 재(齋)를 하며 잤습니다.”⁴⁷⁾

한라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존자암에서 정성을 드리고 올라가던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라산 백록담까지 올라가지 못할 때는 존자암에 단을 만들어 한라산제를 올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관아의 사람들이 모두 고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40여리가 남았는데 가는 길이 매우 험합니다. … 비바람을 만나면 어둡고 길을 잃어 나아갈 수도 뒤돌아 갈 수도 없게 될 것이니 절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 뒤의 깨끗한 땅을 청소하여 단(壇)을 만들고 제사를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였다. ⁴⁸⁾

국성재를 지내지 않게 된 이후로도 존자암은 한라산제를 지내는데 역할을 담당하였다.

46) 김상현,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49.

47)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185.

48) 김상현,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42.

3. 한라산 등반 숙소

한라산을 유람하는 양반들은 존자암을 숙소로 혹은 쉼터로 이용하였다. 제주목사였던 부친을 뵈러 제주도에 왔던 임제는 1578년 한라산을 등반하였는데 날씨가 궂어 존자암에서 5일을 머물렀다. 물론 존자암만이 아니라 산중에 있는 사찰들은 이러한 역할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제는 한라산 남벽 방면 효돈천으로 내려오면서는 두타사에서 1박하였다.⁴⁹⁾ 이익태의 1694년 기록은⁵⁰⁾ “산에 놀러왔을 때 점심을 해 먹는 곳”이라고 하였고, 1702년 이형상은 “별성(別星)이 산에 오를 때 숙식할 뿐이다.”⁵¹⁾라고 하였다.

존자암은 한라산 속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유로 사찰로서의 역할 외에도 관리들이 한라산제를 거행하는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고 기타 한라산을 유람하는 양반들도 이용하였다.

V. 존자암의 위치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었는데 처음에 영실 오백장군동에 있다가 후일 아래쪽 대정현 지경으로 옮겼다. 1530년까지는 오백장군동에 있었고, 1578년 이전 언제쯤부터 오백장군동 밑으로 옮겼다. 존자암의 위치는 15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이전에는 오백장군동에 이후는 오백장군동에서 6,7리 정도 아래쪽으로 옮겨졌다.

49) 임제, 박용후 역, 『남명소승』(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50) 이익태 지, 김익수 역, 『지영록』(제주문화원, 1997), p.20쪽.

51) 이형상, 『남환박물』(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4), p.335.

1. 영실 오백장군동의 존자암

1507년 홍유손의 「존자암 개구 유인문」에 표현한 존자암은 영실 지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지경으로 말해보면, 기암괴석이 조각품처럼 깎아지르게 우뚝 솟아, 떨어져 서 있기도 하고 꽃꽂이 서 있기도 하고 나란히 서 있기도 하며⁵²⁾

홍유손이 표현한 ‘기암괴석이 서 있는 곳’은 오백장군동이 있는 영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도 “기암이며 괴석들이 새기고 찢고 갈고 깎은 듯 곳곳에 우뚝 솟아있다.”⁵³⁾고 표현하여 존자암이 영실 오백장군동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일 이증은 김정이 기록한 영실의 존자암은 옛날 암자라고 하였다.

존자암에 도착하여 조반을 하였다. 이 암자는 옛날에 영실에 있었다. ... 둘러가며 그윽하고 깊숙하게 싸안아 지극히 너무나 맑아서 백 번을 영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충암의 기승(記勝)은 바로 옛날의 암자가 아니겠는가.⁵⁴⁾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존자암도 수행동에 있었다.

존자암[옛날에 한라산 영실에 있었다. 그곳 골짜기에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바위가 있어 민간에서는 수행골이라고 전해온다.]⁵⁵⁾

52) 홍유손, 『(국역)소충유고』(소충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p.61.

53) 김상현,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57.

54)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183.

55) 제주시, 제주대학교박물관 편, 『제주목지지총람』(제주시, 2002), p.267.

1530년경까지 존자암은 영실 수행동 오백장군 부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정현 구역의 존자암

1578년 『남명소승』의 기록부터 존자암은 이전의 영실 오백장군동, 수행동에서 10리쯤 내려온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오백장군동에 가서 놀았다. … 밤을 재촉하고 조심하여 가서 영곡동 어구를 지나니 바위 봉우리는 새로 씻기고 옥잠은 참치하였다. … 산 밑에서 존자암까지 30여리가 될 만하고 존자암에서 여기에 오는 것도 30여리가 될 만한데 꼭대기를 쳐다보면 오히려 평지의 이른바 높은 산과 같다.⁵⁶⁾

1578년 임제가 머물렀던 존자암은 오백장군동 아래쪽에 위치해 있던 곳이다. 임제는 날이 꺾어 한라산을 오르지 못하자 존자암에 머무르며 오백장군동에 가서 놀다 오기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날을 기다렸고, 날이 개자 영곡동을 지나 바위봉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간 것으로 볼 때 존자암은 오백장군동 아래쪽에 위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01년 『남사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존자암에 도착해서 조금 쉬었다. 산기슭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또한 40리이다. … 노상에서 천불봉을 바라보았다.(일명 행도동(行道洞)이라 하고 속칭 영곡이라 한다. 여러 봉우리가 괴석이 높게 빼어난 것이 많은 부처들이 손을 마주잡고 있는 것과 같다. 봉우리 이름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⁵⁷⁾

56) 임제, 박용후 역, 『남명소승』(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pp.63~68.

김상헌은 존자암에 도착하여 조금 쉼 다음 계속 올라가 영곡의 행도동에서 천불봉을 보았다. 천불봉은 오백나한이라고도 하는 오백장군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올라가 수행굴과 칠성대 좌선암을 거쳐 백록담에 도착하였다. 김상헌이 본 존자암도 오백장군동보다 아래쪽에 있었다.

김치가 본 1609년의 존자암은 영실 골짜기에서 6, 7리 떨어진 아래쪽이었다.

6, 7리를 가니 영실 골짜기에 다다랐다. 자못 널찍하고 컸는데 여기도 또한 옛날 존자암 터이다. 천 길 푸른 절벽이 둥그렇게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위에는 괴상한 돌 형상을 한 나한과 같은 것들이 5백여 개나 있고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는데⁵⁸⁾

영실 오백나한이 있는 지경이 옛날 존자암 터였다고 한다. 영실 동남쪽으로 수행굴이 있었고, 다시 10여리를 올라가면 칠성대였다.

골짜기 동남쪽 허리에 한 개 석굴이 있어 ‘수행’이라 하는데 옛날 어떤 도승이 그 속에 살아 무너진 연돌이 아직도 남아있다. 수행을 거쳐 10여리를 가서 칠성대에 닿았다.⁵⁹⁾

1653년의 존자암도 한라산 영실에 있었던 옛 암자로부터 대정현 구역 서쪽 기슭 바깥 10리쯤에 옮겨진 것이었다.

존자암 : 옛날에 한라산 영실에 있었다. 그곳 골짜기에 승려가 도를 닦는 모습을 한 바위가 있어 민간에서는 수행동이라고 전해온다. 지금은 서쪽 기슭 바깥 10리쯤 되는 대정현 구역으로 옮겼다.⁶⁰⁾

57) 김상헌, 홍기표 역, 『남사록』상(제주문화원, 2008), p.142.

58)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190.

59)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191.

1680년 이증도 영실 수행동에 있었던 옛날 존자암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서쪽 기슭 10리 밖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있다고 하였다.

이 암자는 옛날에 영실에 있었다. ... 지금은 서쪽 기슭 밖 10리쯤의 대정 지경으로 옮겨서 다만 유허만 남아있다. ... 충암의 기승(記勝)은 바로 옛날의 암자가 아니겠는가.⁶¹⁾

1694년 이익태는 영곡을 설명하면서 옮겨진 존자암을 기록하였다.

속칭 오백장군동(洞) 혹은 천불봉이라 하고, 일명 행도동(行道洞)이라고도 한다. ... 옛날에는 자그만 사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옮겨져 있다. 존자암이었던 폐지(廢址)에는 계단과 초석이 아직도 완전하다.⁶²⁾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존자암은 영실 오백장군이 있는 곳 수행동에 위치하고 있었다가 후일 산 아래쪽으로 6, 7리~10리 정도 내려간 대정현 지경에 있었다.

VI. 맺음말

기록을 통해 제주도 존자암은 탐라국시대부터 활동하여 고려시대에는 비보사찰로 조선 후기까지 활동하였던 사찰임을 살필 수 있었

60)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 탐라지』(푸른역사, 2002), p.148.

61)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제주문화원, 2001), p.183.

62)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지영록』(제주문화원, 1997), p.69.

다. 본고를 통해 존자암의 활동 시기, 위치, 역할에 대한 옛기록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존자암을 비롯한 조선시대 제주도 사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역불의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관리들의 한라산제 수행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면서 여러 기록 속에 등장한다. 고려시대 존자암의 모습은 존자암지 발굴유물을 통해 알려졌다. 조선시대에는 개인 혹은 공적 행사를 위한 기록물, 한라산 등반기록 그리고 제주도 관련 지도 등 20여 종의 기록을 통해 존자암에 대해 알려졌다.

우선 존자암의 활동시기를 살필 수 있었다. 존자암은 탐라국 시대부터 활동하였다고 보인다. 탐라국은 고구려·백제·신라 및 중국·일본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으므로 불교 등의 문물 또한 탐라국 시대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존자암의 탐라국 시대 활동의 근거가 될 만하다. 존자암은 1750년경까지 존재했던 기록이 있으며, 1841년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 기간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존자암의 역할은 비보사찰로서의 역할에서 한라산제를 위한 역할 게다가 한라산 등반을 위한 숙소로서 활용되었음을 알렸다. 고려시대 존자암은 국가의 지원을 받던 비보사찰이었다. 제주목사 김충광과 천호 등이 존자암을 위해 시주한 명문기와가 발굴되어 있다. 존자암은 조선시대 1500년경까지도 국가에서 하사받은 논에서 나는 경비로 국성재를 행하였다. 이어 존자암은 제주목사들이 한라산제를 지내기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한라산 등반을 위한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기록을 비교하여 존자암의 위치는 1570년대를 전후하여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1530년경까지는 영실 수행동 오백장군 부근에 있었다. 1578년 오백장군동 밑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진 존자암의 기록으

로 미루어 1530년 이후 1578년 이전 어느 시점에 이전된 것임을 밝혔다.

탐라국시대부터 활동한 존자암은 비보사찰로서의 영광의 시대를 지내고 배불정책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한라산 등반을 위한 숙소로서의 역할로 명맥을 잇다가 폐사되었다. 존자암의 변천 모습은 제주불교 성쇠의 일면을 대표하는 양상이다.

K C I

참고문헌

1. 참고 자료

- 김상현, 홍기표 역, 『남사록』상(2008)
김치, 「유한라산기」(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2001))
이원조, 『탐라지초본』상(2007)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2002)
이익태 저, 김익수 역, 『지영록』(1997)
이증, 김익수 역, 『남사일록』(2001)
이형상, 「남환박물」(김봉옥 편역, 『속 탐라록』(1994)
임제, 박용후 역, 『남명소승』(1989)
제주도, 제주대학교박물관, 『존자암지』(1996)
제주시, 제주대학교박물관 편, 『제주목지지총람』(2002)
최익현, 「한라산기」(오문복 역, 『제주도실기』(2003))
홍유손, 『(국역)소충유고』(1997)

2. 참고 도서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2000)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2006)

Abstract

The Study on Jon-Ja-Am in Je-ju-do

Han, Geum-soon

(Doctor of Literature, Jeju University)

Jon-Ja-Am is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historical records among the temples in Jeju-do. The appearance of Jon-Ja-Am in the Goryeo dynasty can be assumed through relics excavated from the location of Jon-Ja-Am. Jo-ja-am in the Joseon dynasty appears in more than 20 records including records for private or official events, records of climbing Mountain Halla, and maps concerned with Jeju-do.

The period of Jon-ja-am's activities started from the period of Tam-ra-kuk, the nation constructed on Jeju island. Until 1750's, the existence of Jon-ja-am is confirmed through historical records. However, it is assumed that Jon-ja-am disappeared in the period between 1750 and 1841, because there are no records mentioning Jon-ja-am from the records of 1841. In the periods of Goryeo dynasty, Jon-ja-am was one of temple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The excavation of the roof tile donated by the minister of Jeju-mok, on which the writing was engraved, prove this historical fact. Until around the year of 1500, the minister of Jeju-mok held 'Kuk-Seong-Jae', the memorial rites for the state, on the financial basis of subsidies from the land bestowed by the government. Jon-ja-am was gradually used as the place for holding memorial rites for Mountain Halla, or as the accommodation for climbing Mountain Halla. Until the period of the year of 1530, the location of Jon-ja-am

was near '500 Generals'(It means the town of a group of stones personalized as generals) , Su-hang-dong(It means 'the town of people who practice asceticism'), Yeongsil, Mountain Halla. However, according to records of Jon-ja-am in 1578, its location was moved to the vicinity of Daejeong-hyun at the bottom of '500 Generals'. Thus, it is assumed that Jon-ja-am was moved at a point of time between 1530 and 1578.

Key words

Kuk-Seong-Jae, temple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the roof tile donated by the minister of Jeju-mok, the financial basis of subsidies from the land bestowed by the government, memorial rites for Mountain Halla, Su-hang-dong



논문투고일 : '11. 11. 4 심사완료일 : '11. 12. 4 게재확정일 : '11. 12. 11